

CONTENTS

본교재와 해설지 모두 맨 뒤쪽에는 ‘빠른 정답’이 있습니다. 해설지를 보기 전 채점을 하고 싶으시다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권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문학편

생각의 시작

Day 1

교재의 사용법	012P
국어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 : ‘생각’합니다.	019P
필연성, ‘생각’의 시작	022P
글 읽기의 시작 - 어휘력	025P
수능 문학에서는 이러한 능력들을 요구한다.	028P
선지 판단의 대원칙 : 독해하고, 허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029P

Day 2

문학 개념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042P
-------------------	------

Day 3

현대시는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글이다.	062P
-----------------------	------

생각의 전개

Day 4~Day 6

시와 수필 : 운문문학은 주제 중심으로 해결한다.	072P
-----------------------------	------

Day 7~Day 9

소설과 극문학 : 산문문학을 통해 인물의 삶을 간접경험한다.	088P
-----------------------------------	------

Day 10~Day 20

실전 문제풀이 연습	106P
------------	------

2권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문학편

Day 21~Day 24

실전 문제풀이 연습

생각의 확장

Day 25~Day 28

고전시가의 세계관은 단순하다.

Day 29~Day 32

고전소설은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위로이다.

Day 33~Day 34

현대소설은 암울한 현대사를 반영한다.

Day 35~Day 37

현대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Day 38~Day 39

생각의 틀 총정리
2024학년도 수능

교재를 마무리한 후

지문 목차 _ 문학편

복습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문의 목차를 정리했습니다. 설명을 위해 예시로 들었던 지문을 제외하고, 한 지문 단위로 공부해보았던 지문만 정리했습니다.

1권

생각의 시작

Day 2 선지 판단의 대원칙 : 독해하고, 허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2011.06 [19~22] 현대시 '강우'	036P
2018.06 [26~29] 현대시 '결빙의 아버지'	037P
2017.06 [34~38] 현대시 '향현'	038P
2023.06 [32~34] 현대시 '항아'	039P
2015.09A [34~37] 극문학 '안개'	040P

생각의 전개

Day 4~Day 6 시와 수필 : 운문문학은 주제 중심으로 해결한다.

2020.11 [43~45] 현대시 '바람이 불어 / 새'	076P
2021.09 [43~45] 현대시 '사령 /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078P
2019.11 [43~45] 고전시가 '일동장유가'	080P
2019.06 [27~31] 현대시+수필 '휴전선 / 우포늪 왓새 / 주얼온천행'	082P
2022.06 [22~27] 고전시가+수필 '유객 / 율리유곡 / 조어삼매'	085P

Day 7~Day 9 소설과 극문학 : 산문문학을 통해 인물의 삶을 간접경험한다.

2018.09 [43~45] 현대소설 '눈이 오면'	096P
2023.09 [28~31] 현대소설 '크리스마스 캐럴 5'	098P
2020.09 [32~34] 고전소설 '장끼전'	100P
2008.09 [40~43] 현대소설 '날개'	102P
2019.09 [39~41] 극문학 '공동 경비 구역 JSA'	104P

Day 10~Day 24 실전 문제풀이 연습

2015.11B [43~45] 현대시 '고향 앞에서 / 낡은 집'	106P
2021.06 [34~37] 현대소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108P
2023.09 [22~27] 현대시+수필 '별 - 금강산시 3 / 길 / 편지'	110P
2014.11B [35~37] 현대소설 '소문의 벽'	114P
2022.11 [18~23] 현대시+수필 '초가 / 거산호 2 / 담초'	116P
2020.06 [16~18] 현대소설 '토지'	120P
2022예시 [22~25] 고전시가 '개와 관련된 시조'	122P
2021.12 [22~25] 현대소설 '사막을 건너는 법'	124P
2022.09 [28~31] 현대시 '종가 / 노래와 이야기'	126P
2020.11 [33~36] 고전소설 '유씨삼대록'	128P

2018.09 [20~22] 현대시 '플라타너스 / 달'	130P
2012.11 [37~39] 극문학 '산허구리'	132P
2021.06 [22~24] 현대시 '산상의 노래 / 나무의 수사학 1'	134P
2017.06 [39~42] 현대소설 '삼대'	136P
2022.06 [32~34] 현대시 '연륜 / 대장간의 유혹'	138P
2013.09 [47~50] 현대소설 '역마'	140P
2022.11 [32~34] 고전시가 '탄궁가 / 농가'	142P
2024.09 [28~31] 현대소설 '원미동 시인'	144P
2021.12 [38~42] 고전시가+수필 '사미인곡 / 창 밖의 워석버석~ /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146P
2022.06 [18~21] 현대소설 '무사와 약사'	150P
2024.06 [31~34] 현대시 '맹세 / 봄'	152P
2022예시 [26~29] 현대소설 '무정'	154P

2권

2011.11 [13~16] 현대시 '자화상 / 선제리 아낙네들 / 그 나무'	
2024.09 [18~21] 고전소설 '숙영낭자전'	
2021.09 [38~42] 고전시가+수필 '만흥 / 우연'	
2023.06 [28~31] 현대소설 '미스터 방'	
2024.09 [22~27] 현대시+수필 '월훈 / 연 1 / 문의당기'	
2024.06 [27~30] 현대소설 '무성격자'	
2010.11 [32~37] 현대시+고전시가 '승무 / 지리산 뽕꼭새 / 면양정가'	
2017LEET [7~10] 현대소설 '가면의 꿈'	

생각의 확장

Day 25~Day 28 고전시가의 세계관은 단순하다.

- 2017.09 [16~18] 고전시가 '방옹시어'
- 2020.06 [32~36] 고전시가+수필 '유원십이곡 / 조용'
- 2023.09 [32~34] 고전시가 '어부단가 / 소유정가'
- 2019.09 [16~20] 고전시가+현대시 '한거십팔곡 / 추억에서'
- 2024.09 [32~34] 고전시가 '성산별곡 / 생매 잡아 길 잘 들어~'
- 2020.09 [16~20] 고전시가 '상춘곡 / 고산구곡가'
- 2022.09 [32~34] 고전시가 '규원가 / 재 위에 우뚝 선~'
- 2019.06 [32~34] 고전시가 '서경별곡 / 만분가'
- 2015.06B [43~45] 고전시가 '도산십이곡'
- 2023.11 [22~26] 고전시가+수필 '도산십이곡 / 지수정가 / 겸재의 빛'
- 2015.11B [31~34] 고전시가 '관동별곡 / 유한라산기'

Day 29~Day 32 고전소설은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위로이다.

- 2019.11 [36~38] 고전소설 '임장군전'
- 2018.06 [35~38] 고전소설 '적성의전'
- 2022예시 [11~15] 고전소설 '박씨전 / 조보'
- 2021.12 [31~33] 고전소설 '최고운전'
- 2020.06 [23~26] 고전소설 '조웅전'
- 2023.09 [18~21] 고전소설 '정수정전'
- 2022.11 [28~31] 고전소설 '박태보전'
- 2017.06 [43~45] 고전소설 '최척전'
- 2022.06 [28~31] 고전소설 '채봉감별곡'
- 2017.09 [40~45] 고전소설 '김현감호 / 이생규장전'
- 2023.06 [18~21] 고전소설 '소현성록'

Day 33~Day 34 현대소설은 암울한 현대사를 반영한다.

- 2016.09B [39~41] 현대소설 '옛우물'
- 2019.09 [42~45] 현대소설 '비 오는 길'
- 2021.09 [16~19] 현대소설 '고향'
- 2016.09A [39~42] 현대소설 '잔등'
- 2019.11 [21~26] 현대소설+극문학 '천변풍경 / 오발탄'

Day 36~Day 37 현대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 2017.09 [19~20] 현대시 '병원 / 나무'
- 2013.09 [27~30] 현대시 '또 다른 고향 / 자화상 · 2 / 멀치'
- 2020.06 [43~45] 현대시 '추일서정 / 하늘과 돌멩이'
- 2018.11 [20~22] 현대시 '강 건너간 노래 / 묘비명'
- 2017.11 [27~32] 현대시+극문학 '구름의 파수병 / 느낌, 극락같은'

본격적으로, 수능이라는 시험의 특성을 바탕으로 문학 영역의 출제의도에 대해 생각해본 뒤, 선지 판단의 대원칙을 세워봅시다. 교재의 전반부이지만, 이 교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학 공부의 감을 잃을 때마다, 몇 번이고 이 페이지를 들춰 보며 다시 정리하도록 합시다.

수능 문학에서는 이러한 능력들을 요구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매년 '20xx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라는 자료를 발간합니다. 다음 글은 해당 자료의 2024학년도 수능 버전에서 발췌한 '문학' 영역의 평가 목표입니다. 사실상 이번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문학' 영역의 평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 능력은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한 심미적·창의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가치있는 삶과 세계의 창조에 기초가 되는 상상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어휘력,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수용과 생산 능력(사고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하략)

이 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문학 능력'에 대한 정의입니다. 평가원은 '문학 능력'을 통해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가치있는 삶과 세계의 창조에 기초가 되는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하네요. 말이 조금 어려우니, 좀 더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학을 통해 다른 인물의 삶을 '간접경험'하게 됩니다. 식민지 생활·전쟁·독재에 대한 저항·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등 직접 경험하기 힘든 여러 상황·갈등을 겪은 인물들의 심정과 행동을 이야기 형식(소설) 혹은 운율적인 언어의 형태(시)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그러한 인물들의 '삶'과 그들이 처한 '세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아 저런 삶도 존재하는구나.', '저런 상황에선 저런 감정이 들겠구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이러한 생각은 다양한 상황에 처한 인물들에게 '공감'하는 능력으로 이어지고, 서로에게 '공감'할 수 있는 '가치있는 삶과 세계의 창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학 능력'은 '공감 능력'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육과정에서 문학은 학생들의 '공감 능력'을 키워주고 이를 바탕으로 더 '가치있는 삶과 세계'를 창조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수능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공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설이나 시에 적합한 텍스트를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의 글에서는 이를 '어휘력, 수용과 생산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휘력'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사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로부터 인물들의 심리를 '추론'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보기> 및 비평문 등의 도움을 받아 더욱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텍스트 독해력'이 갖춰질 때 비로소 '공감'이라는 '문학 능력'을 탑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뒷글을 보면, 평가원은 서로 '공감'하는 '가치있는 삶과 세계'의 창조에 기초가 되는 능력으로 '상상력'을 제시하고 있어요. 문학 작품을 '독해'하며 그 속에 있는 인물들에게 '공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작품 속 상황을 '상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시를 읽든 소설을 읽든, 작품 속에 제시된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진정한 문학의 실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웹툰 등 시각적 자극이 있는 매체를 볼 때 인물들에게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그 장면을 눈앞에 보여 주니, '공감'하기가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작품 속 상황을 '상상'하면서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 내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결국 수능 문학은 여러분이 작품에 제시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상황을 '상상'하며 정확히 읽어낼 '독해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인물 및 화자의 상황·심정에 '공감'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교재는 이제부터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과 독해력, 그리고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시할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 목적을 잊지 않은 채로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문학의 핵심 : 상황을 상상하며 독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한다.〉

선지 판단의 대원칙 : 독해하고, 허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그렇다면, '수능 문학을 잘한다.'라는 명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단순히 다 맞는 것? 앞에서 말한 '공감'을 엄청나게 잘 해내는 것?

이에 대한 정답은 없겠지만, 이 교재에서는 '수능 문학을 잘한다.'를 <EBS의 도움 없이도 빠르게(4지문/20분 초반) 다 맞히는 정도의 실력이 있다.>로 정의합니다. 수능 국어에서 결국 주요 변별 요소는 '독서' 영역입니다. 그런데 독서 파트는 다른 파트와는 요구하는 사고의 깊이가 차원이 달라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며 문제를 풀어야만 하고,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학을 '빠르게' 다 맞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문학을 '빠르게 다 맞기' 위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도 이 교재로 공부하면서 단순히 정답률이 올랐다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 맞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봅시다.

먼저 신문 기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인도 틀리는 수능 영어?!'와 함께 수능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단골 레퍼토리가기도 한 내용입니다. 제가 정말로 싫어하는 기사이기도 한데, 이 파트는 이 기사의 내용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000 시인 “내 시가 출제됐는데, 나도 모두 틀렸다.”

- '모의수능에 단골로 등장하는 작가' 문학교육에 쓴 소리

000 시인이 “내가 쓴 시가 나온 대입 문제를 풀어 봤는데 작가인 내가 모두 틀렸다”고 말했다. ~ 그는 “작가의 의도를 묻는 문제를 진짜 작가가 모른다면 누가 아는 건지 참 미스터리”라며 쓴소리를 했다. ~

아마 관련 내용을 본 적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유명 시인이 TV 프로그램에 나와 모의고사에 출제된 본인의 시와 관련된 문제를 풀었고, 모두 틀리자 '시인도 틀리는 수능 문학!'이라는 프레임으로 수능이 무의미한 시험이라는 주장을 펼쳤던 사건이죠.

일단 위의 시인이 푼 문제가 수능 문제도, 평가원 모의평가 문제도 아닌 '교육청 학력평가 문제'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기도 하지만, (그리고 당시 시인이 지문이나 <보기>를 읽지도 않고 그냥 풀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비판 속에 수능 문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완전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수능 문학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요.

참고로, 처음 '갈등'에 대한 선지들을 보여 드릴 때 '심화'라는 용어에도 굵은 글씨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심화'라는 용어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말 그대로 '깊어지는 것'의 의미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같은 내면세계가 '반복'될 때 '심화'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떠한 감정이나 생각이 '반복'되면 그 감정이나 생각이 '깊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하나의 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상

- ④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지연시키며 서술하고 있다. (2022.06)
- ③ 과거 회상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2022.09)
-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관망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023.06)
- ②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2023.09)
- ① 회상 장면을 병치하여 사건의 흐름을 반전시킨다. (2024.06)
- ④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을 포착하고 있다. (2024.09)

앞에서 '성찰'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제시했던 개념입니다. 거기서도 설명했듯이, '회상'은 '자아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보는 성찰의 결과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과거의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면'이라는 개념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옛날 생각이 난다.'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민재랑 같이 물놀이 갔던 그날이 생각난다.'와 같은 표현이 있어야 '회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봐도,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성격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2023.06)
- ④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성격의 변화를 보여 준다. (2024.06)
- ⑤ 인물의 성격을 고사에 빗대어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한다. (2024.06)

소설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인 '성격'입니다. 소설에서 '성격'은 인물의 '특징'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착하다/악독하다'와 같은 품성과 관련된 것 외에도 '예쁘다/손이 크다'처럼 그 인물의 고유한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면 모두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격'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로, 인물의 모든 행위/생각은 그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재는 그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민재는 공감을 잘하는 성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표현법

시에는 '자아의 내면세계'를 더 풍부하게 드러내기 위한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법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표현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새로운 표현법을 만날 때마다 다시 또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⑤ [B], [C]는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였다. (2022.09)
- ① ㉠은 대구를 통해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023.09)
- ⑤ (가)와 (나)는 모두 대구를 사용하여 대조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2024.09)

먼저 자주 등장하는 ‘대구법’입니다. ‘비슷한’ 시구, 문장 형식을 나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돌아오기가 어렵고 힘든 걸 알아 / 이제 더는 상처받기가 두렵고 싫은 걸 알아’라는 노래 가사는 ‘~가 ~고 ~한 걸 알아.’라는 문장 형식을 반복하는 방식의 ‘대구법’을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슷한’입니다. 아예 동일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문장 형식이 있으면 ‘대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눈치 채셨겠지만, ‘얼마나 비슷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의미 없습니다. 충분히 비슷하다고 느껴질 때만 출제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나아가, ‘대구법’처럼 ‘반복’되는 느낌을 주는 표현법은 반드시 ‘리듬감’을 형성합니다. 앞에서 ‘심화’ 역시 ‘반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심화’는 ‘내면세계의 반복’이라면 ‘리듬감’은 ‘단어 및 문장 구조의 반복’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③ 영탄적인 어조로 대상에서 촉발된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2023.09)
- ① (가)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2024.09)

다음은 ‘영탄법’입니다. ‘영탄법’의 사전적 정의는 ‘감탄사나 감탄 조사 따위를 이용하여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수사법’입니다. 핵심은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예요. ‘아아, 어와, 어즈버’ 등과 같은 감탄사를 쓰는 경우가 대표적이는데, 이렇게 누가 봐도 ‘영탄법’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외에도 ‘감탄형 종결어미’(-로다, -노라, -구나, -ㄴ가 등)를 사용하는 경우 역시 ‘영탄법’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핵심은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느낌이 오면 어렵지 않게 ‘영탄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2022.06)
- 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2024.09)

‘영탄법’의 대표적인 예시에는 ‘설의법’도 있습니다. ‘설의법’은 물음의 형태를 취하지만, 진짜로 무언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및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법입니다. 예를 들어 ‘와 저 옷 왜 저렇게 예쁘지?’라고 하면, 정말로 옷이 예쁜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옷이 예쁘다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의법’ 역시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영탄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정리하기보다는,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라는 포인트에 맞춰서 납득하시기 바랍니다.

- ④ [D]는 점층적인 표현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2024.06)

‘점층법’ 역시 자주 출제되는 표현법입니다. ‘점층법’은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점점 심화시키는 표현법입니다. 예를 들어 ‘개천 - 강 - 바다’ 혹은 ‘한국 - 지구 - 우주’의 순서대로 서술하는 경우 ‘점층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눈→떨어진 눈→마당 위에 떨어진 눈’처럼 어떤 대상의 의미를 더 깊게 ‘심화’시키는 경우에도 ‘점층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점층법’은 말하고자 하는 바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경우를 통칭하는데, 이와 반대되어 말하고자 하는 바의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점강법’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우리나라 사람들→우리 가족’과 같은 식으로 서술하면, 이때는 ‘점강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점강법’ 역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점점 ‘심화’시키는 표현법이라는 점에서, (반복되니까요!) ‘점층법’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점층법 / 점강법’이라는 표현보다는 위 선지처럼 ‘점층적인 표현’과 같은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니,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점점 심화시킨다’는 ‘점층법’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① (가)와 (나)는 모두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다. (2022예시)

‘공감각적 표현’은 하나의 감각적 심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푸른 종소리’라는 표현은 청각적 이미지(종소리)를 시각적 이미지(푸른)로 전이시켜, 귀에 들리는 ‘종소리’를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감각적 표현’이 맞는 선지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하지만, 개념은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서로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복합 감각적 심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평가원 시험에 출제된 적이 거의 없는 표현이기는 한데, ‘공감각적 표현’과 엮어서 알아두도록 합니다.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이라는 표현은 후각적 이미지(술 익는)와 시각적 이미지(저녁놀)라는 두 가지 감각적 이미지가 등장하지만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감각적 표현’의 핵심은 ‘감각의 전이’인데, 이 표현은 단순히 후각과 시각을 함께 나열했을 뿐, ‘전이’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감각적 이미지를 단순히 나열하기만 하는 경우 ‘복합 감각적 심상’이 쓰였다고 합니다. 다만 ‘술 익는 저녁놀’과 같은 표현을 쓴다면 이것은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② (가)와 (나)는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2022예시)

마지막은 ‘반어법’입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면, ‘반어법’은 ‘내면세계와 반대되는 말을 하는 표현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집안 꼴 잘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는 그 집안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내면세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잘 돌아간다’는 말을 하는 것이기에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반어법’은 대상을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아의 내면세계’ 자체를 표현하는 문학에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을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내면세계가 주제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반어법’이 쓰였을 확률이 높겠죠? 위의 선지도 ‘반어적 표현’을 화자의 ‘비판적 태도’와 엮어서 물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표현법들이 있습니다만, 최근 3개년 동안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평가원이 표현법 자체를 묻는 문제의 출제는 지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뒤에서 과거 기출 선지들을 통해 중요한 표현법들은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음성 상징어

③ [C]는 두 대상을 발음이 비슷한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었다. (2022.09)

③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2023.06)

② (나)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인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2024.09)

의외로 자주 출제되는 ‘음성 상징어’입니다. ‘음성 상징어’는 말 그대로 ‘음성’으로 어떤 대상을 ‘상징’하는 언‘어’를 말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성어’는 특정한 소리를 흉내내는 말입니다. ‘꼬끼오’, ‘쩍쩍’, ‘부릉부릉’ 같은 표현들이 이에 해당하죠. 한편 ‘의태어’는 특정한 움직임이나 상태를 흉내내는 말입니다. ‘강충강충’, ‘야금야금’, ‘싱글빙글’ 같은 표현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자아의 내면세계’나 화자를 둘러싼 상황을 더욱 풍부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의외로 자주 사용되니 확실하게 알아둡시다.

가상 / 환상적

- ⑤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2023.11)
-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내고 있다. (2024.09)

특히 고전소설에서 자주 출제되는 '가상'과 '환상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도 정리해봅시다. 먼저 '가상'은 말 그대로 '가상'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든,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든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면 모두 '가상'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랑 결혼하면 내가 정말 잘해줄게!'라는 표현이나, (실제로 결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음.) '하늘의 별을 딸 수 있다면 너에게 줄 텐데'와 같은 표현(하늘의 별을 따는 것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라,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속함)은 모두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편, '환상적'이라는 표현은 '비현실적'으로 바뀌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안 돼요! '가상'의 상황 중에서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을 다루는 개념이 바로 '환상적'이라는 표현이에요. 문학 문제를 풀다가 '환상적'이라는 표현을 만나면, '비현실적'으로 바뀌서 생각하면 판단이 쉬울 것입니다.

구체적

- ②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장면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2024.06)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각적'으로 묘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후각적, 미각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묘사하면 허용됩니다. 나아가 '구체적 묘사'가 있으면, 장면의 '현장성'도 당연히 강화될 것입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표현하니까요.

이 정도만 알아도 특정한 용어의 의미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외에도 알아야 하는 것들은 뒤에서 다 설명해드릴 테니, 일단 이 정도만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오늘은 산문문학을 독해하고 해결하는 태도에 대해서 배워 볼 것입니다. 길고 긴 소설 지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소설과 극문학 : 산문문학을 통해 인물의 삶을 간접경험한다.

우리는 소설을 왜 배울까요? 소설을 비롯한 문학을 배우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은 ‘공감 능력 향상’입니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이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전쟁·독재·빈곤 등 우리가 쉽게 겪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는 인물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인물의 삶에 ‘공감’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그 상황에서 어떤 심정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서, ‘저런 상황이라면, 저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정규 교육과정에서 소설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그대로죠? 운문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텍스트의 양이 많아 인물 각각의 내면세계에게 공감할 만한 단서가 많은 산문문학에서는 이 ‘공감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소설 문제 역시 인물에 대한 ‘공감’ 능력이 갖춰져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물론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던 대로 ‘독해력’이 갖춰져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인물이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즉 어떤 이유로 그러한 ‘내면세계’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공감’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우리도 이에 맞춰 지문을 읽어주시면 되겠죠? 소설에서 인물에게 ‘공감’하며 읽는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문의 내용이 정확히 ‘이해’된 상태에서는 문제풀이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산문문학 문제풀이 시간을 줄여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물에 대한 공감’이라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확실하게 ‘이해’하며 읽는 연습을 할 겁니다. 문제에 나오는 포인트이면서 인물에게 ‘공감’하는 데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지문을 ‘최대한 한 번만’ 읽고, 그것을 토대로 선지의 허용 가능성을 평가할 겁니다. 물론 정말로 한 번만 읽고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읽을 때 제대로 읽자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물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지문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포인트들에는

1. 인물의 심리/행동/발화의 근거
2. 인물관계
3. 시간/공간(변화)
4. 배경/외양 묘사

정도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생각보다 체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자세히 정리해봅시다.

먼저 소설에서 ‘인물의 심리/행동/발화’는 시에서 화자의 ‘반응’이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인물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공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때 각각의 인물들이 단순히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도대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이게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인물관계’ 및 ‘시/공간적 배경’ 등은 모두 인물의 심리와 행동에 ‘명분’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따라서, 시험장에서 소설이 잘 읽히지 않을 때는 하나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애가 왜 이러지?” 이를 생각하며 읽는 연습을 많이 해 주시면, 시험장에서도 각 인물들에게 깊게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어내면, 그 자체가 바로 작품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소설을 읽는 우리의 목표는 여기가 되어야 해요. 전문을 신지 않는 수능의 특성상, 전체적인 줄거리 파악보다는 각 장면마다 인물에게 ‘공감’할 수 있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행동/발화 및 그 근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예요.

다음으로 인물관계는 소설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설은 ‘여러 인물들의 상호작용’을 그려내는 것이고, 각 인물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는 각 인물에게 ‘공감’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내용이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나와 가까운 사이의 친구가 하는 것과 원수같은 친구가 하는 것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소설의 인물들도 마찬가지로 각자 맺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 따라 심리나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이 부분을 캐치해야 각 인물들에게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인물관계를 체크하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인물에게 ‘공감’하는 데 있어 인물관계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공간은 소설을 이루는 세계, 즉 일종의 ‘상황’입니다. 시에서 화자의 상황이 중요하듯이, 소설에서도 그 인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대적 배경은 언제인지, 현재 있는 공간이 그 인물에게 편한 곳인지 아닌지와 같은 요소들도 인물의 내면세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특히 시간이 거꾸로 가거나, 뒤죽박죽 이어지거나 하는 ‘시간의 변화’, 또 지상계에서 천상계로 넘어간다거나 인물이 계속해서 이동하며 공간을 바꾸는 경우 등의 ‘공간의 변화’는 평가원이 굉장히 좋아하는 출제 요소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변화’는 특이한 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시간/공간 역시 인물에게 ‘공감’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경/외양 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배경 묘사의 경우, ‘인물의 심리’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이 좋은 날에 오는 비와 기분이 더러운 날에 오는 비는 완전히 다르게 묘사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인물의 심리뿐 아니라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배경 묘사에 반영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평화로운 분위기면 평화롭게, 긴박한 분위기면 긴박하게 묘사된다는 것이예요. 범죄 영화의 마지막 길고 긴 액션씬에선 항상 비가 오잖아요? 또 로맨스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첫키스를 하는 날은 보통 눈이 부시도록 맑은 날이구요. 이처럼 ‘인물의 심리’ 혹은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으니 ‘배경 묘사’가 나오면 어떤 심리, 혹은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인지 신경 쓰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는 또 ‘인물’에게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니까요.

외양 묘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물의 성격’과 직결되는 정보이기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흥부와 놀부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없겠죠. 애초에 실존 인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흥부와 놀부의 얼굴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부는 둥그런 얼굴에 인자한 눈매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놀부는 주걱턱에 뾰족한 눈썹을 가지고 있을 것만 같아요. 왜 이런 이미지가 생긴 것일까요? 그렇죠. 많은 서술자들이 인물의 ‘성격’에 따라 그들의 외양을 묘사해왔기 때문이에요! 바보같고 착한 이미지인 흥부는 둥글둥글하게, 동생조차 외면하는 나쁜 이미지로 그려지는 놀부는 뾰족하고 날카롭게! 이해되지요? 이렇게 ‘외양 묘사’가 나오는 경우 그 묘사를 체크하면서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이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어떤 성격을 드러내고 싶은 걸까?” 이 생각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잡고 간다면, 역시 ‘인물’의 심리나 행위에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그 인물에게 ‘공감’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겠죠?

물론 이것 외에도 문제가 출제되는 포인트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위의 포인트들만 인식하면서 지문을 읽어준다면 적어도 지문 내용이 이해가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상 이게 소설의 전부니까요! 저 포인트들을 바탕으로 인물에게 ‘공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문을 ‘이해’하며, 각 선지들의 허용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소설 지문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들을 찾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이 포인트들은 어떠한 스킬 같은 것이 아닌, 소설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 포인트들을 체크하는

[8~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3.09 [22~27]

(해설 p.106)

(가)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
득히 나는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백화(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총총히 외롭도 있고
왔더니라

살다가 오래여 삭은 장목들 흰 팔 벌리고 서 있고 풍
설(風雪)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 훌 훌 훌 창천(蒼天)에
흰 구름 날리며 섰더니라

싸아—한종일내—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안은 바람소
리 구월 고운 낙엽은 날리어 푸른 담(潭) 위에 호르
르르 낙화 같이 지더니라.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히 뿌리어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느니,

이제 나의 이 오늘밤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
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은 쏠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
(爛漫)하여라.

-박두진, 「별-금강산시 3」-

(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A」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B」

사람들이 이것이야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C」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신경림, 「길」-

(다)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초롱초롱 맑게 고인 샘물 같은
눈으로 나는 지금 당신께서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 봅니다. 들여다보노라니 그윽한 향기와
새파란 꿈이 안개같이 오르고 또 노란 슬픔이 연기같이
오릅니다. 나는 이제 이 긴긴 밤을 당신께 이 노란 슬픔
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남쪽 바닷가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
하였습니다.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패
고 키가 호리 낭창하였습니다.

(중략)

어느 해 유월이 저물게 실비 오는 무더운 밤에 처음으
로 그를 안 나는 여러 아름다운 것에 그를 견주어 보았
습니다—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산새에도 해오라비에도
또 진달래에도 그리고 산호에도……. 그러나 나는 어리석
어서 아름다움이 닮은 것을 골라낼 수 없었습니다.

충명한 내 친구 하나가 그를 비껴서 수선이라고 하였
습니다. 그제는 나도 기뻐서 그를 비껴 수선이라고 하였
습니다. 그러한 나의 수선이 시들어 갑니다. 그는 스물을
넘지 못하고 또 가슴의 병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만하고 나의 노란 슬픔이 더 떠오르지 않게 나는 당신
의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의 폭을 치워 놓아야 하
겠습니다.

밤이 아직 샅 때가 멀고 또 복밥을 먹을 때도 아직 되
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새 형겹이나 얻어다가 알록달록한 각시나
만들면서 이 남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
름* 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육보름으로 넘어서는 밤은 집집이 인간으로 사랑으로
 옷간에도 만웃간에도 다락방에도 허텅에도 고방에도 부
 엽에도 대문 간에도 외양간에도 모두 짜듯하니 불을 켜
 놓고 복을 맞이하는 밤입니다. 달 밝은 마을의 행길 어
 데로는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입니다. 닭이
 수잠을 자고 개가 밤물을 먹고 도야지 깃을 들썩이는 밤
 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새 옷을 입고 복물을 낚는다고
 별을 건너기도 하고 고개를 넘기도 하여 부잣집 우물로
 가서 반동이에 옹패기에 찰락찰락 물을 길어 오며 별 같
 은 이야기를 자갈자갈 하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또 복을 가져오노라고 달을 보고 웃어 가며 살쾅이같이
 여우같이 부잣집으로 가서는 날쌔기도 하게 기왓골의
 기왓장을 벗겨 오고 부엌의 솔뚜껑을 들어 오고 곱새담
 의 짚날을 뽑아 오고……. 이렇게 허물없는 즐거움 속에
 끼득끼득 하는 그들은 산에서 내린 무슨 암짐승이 되어
 버리는 밤입니다.

-백석, 「편지」-

* 육보름 : 정월 대보름 다음날.

0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영탄적인 어조로 대상에서 촉발된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예스러운 종결 표현으로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 ⑤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09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에서 화자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자연의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와 자연의 정서적 교감을 드러낸다.

(나)에서 화자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서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밖'과 '안'을 대비하여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 내는 길의 상징적 의미를 진술함으로써, 길에 대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① (가)는 '화안한 골 길'과 '백화 앙상한 사이'를 통해, 화자가 여정 속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군.
- ② (가)는 '바다의 별들'과 '하늘에 별들'을 통해, 화자의 내면에 투영된 자연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형상화하고 있군.
- ③ (나)는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관점으로만 길을 이해한 사람들을 일깨우려 하고 있군.
- ④ (나)는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 낸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 ⑤ (가)는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에서, (나)는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에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군.

10 (가),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구월'은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② (다)의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은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③ (가)의 '어젯밤'은 화자가, (다)의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은 글쓴이가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④ (가)의 '오늘밤'은 화자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다)의 '실비 오는 무더운 밤'은 글쓴이가 지난날을 후회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 ⑤ (가)의 '인기척 끊긴 '한낮'은 화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 (다)의 '아직 쌀 때가' 먼 '이 남은 밤'은 글쓴이가 이야기를 계속할 만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11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아득히', '왔더니라'를 반복하여, '첩첩한 산길'과 '머언 생각에 잠기'는 화자의 내면을 조용시키고 있다.
- ② 2연의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3연의 '오래여 삭은 장목들'과 '풍설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를 통해, 자연의 유구함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표상하고 있다.
- ④ 3연의 '홀 홀 홀', 4연의 '쏟아', '호르르'와 같은 표현으로, 자연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 ⑤ 5연의 '동해안'과 6연의 '산장'이라는 공간의 대조를 통해, 장소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12 [A]~[F]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길'이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다는 진술의 구체적인 양상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B]에서의 경험을 [C]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 ③ [C]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바가 무엇인지를 [D]에서 밝히고 있다.
- ④ [E]와 같이 제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의 모습은 [B]와 대비되고 있다.
- ⑤ [F]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태도는 [A]의 '사람들'의 태도와 대비되고 있다.

13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당신'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이 수필에서 글쓴이는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수선화에서 연상된 이야기가 글쓴이에게 슬픔을 환기하는 기억이라면, 고향의 풍속 이야기는 일탈이 용인되는 유쾌한 축제로 그려진다. 이를 통해 독자는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삶의 양면성을 경험하게 된다.

- ① 글쓴이가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독자는 자신이 편지의 수신인이 된 것처럼 친근함을 느낄 수 있겠군.
- ② '노란 슬픔의 이야기'는 '가슴의 병'을 얻은 여인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육보름'에 대한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을 대비한 것은 삶의 양면성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군.
- ④ '부잣집'의 '기왓장을 벗겨 오'는 '새악시 처녀들'의 행동은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 일시적으로 용인된 것이겠군.
- ⑤ '자깅자깅', '끼득끼득'과 같은 음성 상징어에서 '새악시 처녀들'의 '허물없는 즐거움'과 쾌감을 느낄 수 있겠군.

(해설 p.117)

“도대체 박준은 어째서 꼭 불을 밝혀 놓아야 잠이 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전깃불을 보고는 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까?”

“중요한 걸 물으시는군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김 박사는 그동안 나에게서 그런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기라도 한 듯 이번에는 박준의 버릇에 대해 다시 설명을 시작했다.

“글쎄, 나 역시도 어젯밤 우연히 그런 발작이 나기까지는 환자가 특히 어둠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야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다른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병증의 하나임엔 틀림없지요. 하지만 이제까지의 관찰로는 영 그 원인을 분석해 낼 재간이 없었던 말입니다. 한데 어젯밤 발작을 보고는 비로소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환자가 그토록 어둠을 싫어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그 어둠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둠으로부터 연상되는 어떤 다른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전깃불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지요. 환자가 진짜 발작을 일으키도록 심한 공포감을 유발시킨 것은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나타난 전깃불이었던 말씀입니다. 환자에겐 그 어둠이라는 것이 늘 전깃불을 연상시키는 공포의 촉매물이었지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박준이 무엇 때문에 그 전깃불에 공포를 느끼게 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이겠군요. 그게 바로 박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최초의 갈등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옳은 말씀이에요. 전깃불의 비밀이야말로 박준 씨의 치료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지요.”

“하지만 어젯밤 박준이 전깃불을 보고 놀랐던 것만으론 그가 어째서 그것에 대해 공포감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깃불의 공포라는 것이 박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아직 설명하실 수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셈이지요.”

“역시 그의 소설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필시 박준의 소설들과 전깃불 사이엔 뭔가 썩 깊은 상관이 있는 듯한 예감에 사로잡히며 은근히 김 박사를 권해 보았다. 그러나 김 박사는 박준의 소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보이려 하지 않았다.

“역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별로 기분 좋은 방법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젠 최소한 환자로 하여금 전깃불의 내력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할 마지막 방법은 찾아 놓고 있는 셈이니까요.”

(중략)

—이 달의 화제작, 화제 작가.

신문지는 벌써 이태쯤 전에 발간된 어떤 주간지의 한 조각이었는데, 거기엔 우선 그런 제호가 크게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제호 한쪽으로 그 달에 발표된 박준의 소설이 한 편 몇몇 평론가들로부터 합평되어 있고, 다른 한쪽엔 그 달의 화제 작가로서 박준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신문지 조각을 못에서 빼어냈다. 그러나 금세 실망이 되고 말았다. 기사는 별로 읽을 만한 곳이 남아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사가 다른 조각으로 찢어져 나가 버리고 없었다. 찢어져 나간 조각들은 찾아낼 수가 없었다. 이미 휴지로 사용이 되고 만 모양이었다. 남아 있는 것은 그의 인터뷰 기사 중의 몇 마디뿐이었다. 나는 그것이나마 찢어지다 남은 데서부터 기사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당신은 아까 내가 위험한 질문이라고 한 말의 뜻을 아직 잘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설명을 하겠다…….

아마 기자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연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박준은 이야기를 꽤 길게 계속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 겪은 일이지만 난 아주 기분 나쁜 기억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 6·25가 터지고 나서 우리 고향에는 한동안 우리 경찰대와 지방 공비가 뒤죽박죽으로 마을을 찾아드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경찰인지 공빈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마을을 찾아 들어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우리 집까지 찾아 들어와 어머니하고 내가 잠 들고 있는 방문을 열어젖혔다. 눈이 부시도록 밝은 전깃불을 얼굴에다 내리비추며 어머니더러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전깃불 뒤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대 사람인지 공빈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지독한 복수를 당할 것이 뻔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 정체를 모른 채 대답을 해야 할 사정이었다. 어머니의 입장은 절망적이었다. 나는

[A]

지금까지도 그 절망적인 순간의 기억을,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려 버린 전깃불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요즘 나의 소설 작업 중에도 가끔 그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곤 한다.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전깃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문학 행위란 어떻게 보면 한 작가의 가장 성실한 자기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전깃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 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가 바로 그렇다……. 박준의 말은 거기서 일단 끝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리고 신문이 찢어져 나가 버린 것도 거기서부터였다.

-이청준, 「소문의 벽」-

14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 박사’는 ‘박준’이 느끼는 공포감의 비밀을 밝힐 방법을 찾았다고 믿는다.
- ② ‘김 박사’의 말을 들은 ‘나’는 그의 치료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 ③ ‘박준’이 어둠 때문에 발작을 일으킨 일이 있음을 ‘김 박사’는 알지 못하고 있다.
- ④ ‘어머니’의 입장이 절망적인 것은 아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 ⑤ 신문지 조각을 읽은 ‘나’는 궁금해 하는 사실과 기사 내용이 거리가 있어서 실망한다.

15 [A]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부각한다.
- ②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 시점에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 ③ 주인공의 두 경험을 연관 지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단서를 제공한다.
- ④ 동일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 놓는다.
- ⑤ 이질적인 시선을 대비해 가며 역사적인 사건의 전모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정신적 외상(trauma)은 충격적 경험의 기억이 무의식에 잠재되었다가 정신적 병증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 기억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이를 들추어 ‘말문’을 트게 하는 것은 정신적 병증의 치유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공동체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외상에 대해 ‘말문 트기’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소설은 개인의 아픔은 물론 사회적 병증을 치유해 주는 개인적·사회적 말문 트기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① ‘전깃불의 공포’를 강하게 느끼는 ‘박준’은, 일방적 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여 고통 받는 이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겠군.
- ② ‘전깃불의 공포’와 ‘소설 작업’의 관계에 주목해 보면, 소설 쓰기를 통한 ‘박준’의 ‘자기 진술’은 치유 방법으로서의 말문 트기에 상응하는 것이겠군.
- ③ ‘자기 진술’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박준’의 고백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자기 진술’의 상황 속에서 정신적 외상이 환기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유년의 ‘기분 나쁜 기억’이 전쟁으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 상황과 관련되었다는 설정을 통해, ‘박준’의 정신적 외상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군.
- ⑤ 정신적 외상의 최초 원인을 밝히기 위해 ‘김 박사’가 ‘박준’의 과거 기억을 진술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말문 트기 방법을 모색한 결과이겠군.

해설	사람들은 '길'이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화자는 이런 사람들은 '길'이 사람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선지의 '내적 성찰'과 대응될 텐데, 이로부터 '세상 사는 이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직 '내적 성찰'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것을 독해할 수 있네요. 이렇게 명백한 근거가 존재하니,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겠습니다.
----	---

⑤ (가)는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에서, (나)는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에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군.

이제 나의 이 오늘밤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은 쏠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爛漫)하여라.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들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부 긍정적인 표현으로 보이네.
해설	'하늘에 별들이 '꽃'처럼 '난만'(꽃이 활짝 피어 화려한 모습)하다는 것, 그리고 '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향기'를 준다는 것 등은 모두 대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6%	8%	6%	77%

10 (가),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① (가)의 '구월'은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싸아—한종일내—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안은 바람소리 구월 고운 낙엽은 날리어 푸른 담(潭) 위에 흐르르 낙화 같이 지더니라.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고뇌가 어딴어.
해설	'구월'은 '고운 낙엽'이라는 자연의 모습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고뇌'를 허용할 근거는 보이지 않네요. 애초에 (가)의 주제와 크게 벗어나는 내용이기 에 가볍게 지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② (다)의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은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초롱초롱 맑게 고인 샘물 같은 눈으로 나는 지금 당신께서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 봅니다. 들여다보노라니 그윽한 향기와 새파란 꿈이 안개같이 오르고 또 노란 슬픔이 연기같이 오릅니다. 나는 이제 이 긴긴 밤을 당신께 이 노란 슬픔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당신을 만나겠다고 한 적은 없는데?
해설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은 '당신'이 주신 '수선화'를 보고 '노란 슬픔'에 빠지는 시간입니다. '당신'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한 적도 없고, '기대감'이 아닌 '노란 슬픔'에 빠져 있다는 근거도 있으니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선지네요.

③ (가)의 '어젯밤'은 화자가, (다)의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은 글쓴이가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히 뿌리어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느니,

달 밝은 마을의 행길 어데로는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입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고독감은 주제랑 너무 어긋나지.
해설	'어젯밤'은 화자가 혼자서 자연을 즐기는 시간이고,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은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육보름 밤을 의미합니다. '고독감'을 허용할 근거가 전혀 없네요. 애초에

두 작품의 주제와 크게 어긋나기도 하죠?

④ (가)의 ‘오늘밤’은 화자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다)의 ‘실비 오는 무더운 밤’은 글쓴이가 지난날을 후회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이제 나의 이 오늘밤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은 쏠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爛漫)하여라.

어느 해 유월이 저물게 실비 오는 무더운 밤에 처음으로 그를 안 나는 여러 아름다운 것에 그를 견주어 보았습니다—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산새에도 해오라비에도 또 진달래에도 그리고 산호에도……. 그러나 나는 어리석어서 아름다움이 닮은 것을 골라낼 수 없었습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고향에 대한 내용도 없고, 후회하지도 않았지.
해설	(가)의 화자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린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밤’ 자연을 즐길 뿐이에요. 나아가 ‘실비 오는 무더운 밤’은 글쓴이가 ‘치녀’를 아름다움에 빗대보던 시간이지, ‘후회’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허용을 해 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네요.

⑤ (가)의 ‘인기척 끊긴 ‘한낮’은 화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 (다)의 ‘아직 썰 때가’ 먼 ‘이 남은 밤’은 글쓴이가 이야기를 계속할 만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밤이 아직 썰 때가 멀고 또 복밥을 먹을 때도 아직 되지 않았습디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새 형짚이나 얻어다가 알룩달룩한 각시나 만들면서 이 남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디카.

* 육보름 : 정월 대보름 다음날.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근거가 그대로 있네.
해설	‘인기척 끊긴 ‘한낮’에 화자는 생각에 잠기어 왔고 했고, ‘이 남은 밤’에 글쓴이는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지에서 묻는 내용 그대로 지문에 적혀 있으니,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6%	9%	3%	78%

11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

① 1연에서 ‘아득히’, ‘왔더니라’를 반복하여, ‘첩첩한 산길’과 ‘머언 생각에 잠기’는 화자의 내면을 조용시키고 있다.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득히 왔더니라가 첩첩한 산길이란 머언 생각에서 반복적으로 쓰였네.
해설	‘아득히’와 ‘왔더니라’라는 표현은 ‘첩첩한 산길’과 ‘머언 생각’에 대응되며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첩첩한 산길’이 ‘머언 생각에 잠기’는 화자의 내면과 대응된다는 것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② 2연의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백화(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총총히 외롭도 있고 왔더니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물소리에 흰 돌이 된 것 같다고 했으니 자연과 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해설	화자는 '백화 앙상한 사이'를 지날 때 자신이 '흰 돌'이 되어 '물소리'에 '씻기우'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화'와 같은 자연과 관계를 맺으며 그로부터 자연과 하나가 된 것 같은 정서를 느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애초에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은 무조건 맞는 말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③ 3연의 '오래여 삭은 장목들'과 '풍설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를 통해, 자연의 유구함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묘상하고 있다.

살다가 오래여 삭은 장목들 흰 팔 벌리고 서 있고 풍설(風雪)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 훌 훌 훌 창천(蒼天)에 흰 구름 날리며 섰더니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오래된 것들이니까 허용되겠다.
해설	'유구함'이라는 단어는 '아득하게 오래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목들'은 '오래'되었고, '봉우리'는 '풍설'에 깎일 정도로 많은 시간을 견뎠다고 했으니 '유구함'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묘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유구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몰랐다고 해도, '자연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은 이 작품의 주제 그 자체이므로 일단 허용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④ 3연의 '훌 훌 훌', 4연의 '쏟아', '호르르'와 같은 표현으로, 자연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살다가 오래여 삭은 장목들 흰 팔 벌리고 서 있고 풍설(風雪)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 훌 훌 훌 창천(蒼天)에 흰 구름 날리며 섰더니라

쏟아—한종일내—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안은 바람소리 구월 고운 낙엽은 날리어 푸른 담(潭) 위에 호르르 낙화 같이 지더니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음성 상징어니까 생동감 있다고 할 수 있지.

해설	이러한 음성 상징어들을 사용하면 자연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죠? 가볍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	---

⑤ 5연의 '동해안'과 6연의 '산장'이라는 공간의 대조를 통해, 장소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히 뿌리어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느니,

이제 나의 이 오늘밤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은 쓸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爛漫)하여라.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태도 변화가 어딤냐.
해설	화자는 '동해안'에서도, '산장'에서도 그저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두 공간이 '대조'된다고 보기도 힘들고, 이를 통해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절대 허용할 수 없겠죠? '태도 변화'라는 엄청난 반응은 우리가 놓칠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	10%	13%	66%	3%

12 [A]~[F]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① [A]에서 '길'이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다는 진술의 구체적인 양상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B]는 [A]의 예시지.
해설	앞 문제를 풀면서도 확인한 내용이지만, 사람들을 '벼랑 앞에서 '낭패'시킨다는 내용과 [B]의 내용은 모두 [A]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길'이 '사람들의 뜻'을 그대로 좇지 않는 예시에 해당하니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② [B]에서의 경험을 [C]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문장들의 관계만 따지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B]와 같은 경험을 하자, ‘사람들’은 [C]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것도 ‘사람들’의 착각이었지만요.

③ [C]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바가 무엇인지를 [D]에서 밝히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람들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맞네.
해설	사람들은 [B]와 같은 일을 겪고서 [C]처럼 생각하지만, 이는 [D]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D]에 따르면 사람들은 ‘길’이 ‘내적 성찰’을 돕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예요. 그냥 문장 그대로 읽어내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④ [E]와 같이 제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의 모습은 [B]와 대비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길이 뜻을 굽히지는 않았지.
해설	정확하게 독해해야 합니다. [E]에 따르면 ‘길’은 자신이 안으로 나 있다는 것, 즉 ‘제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만 고분고분하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B]와 대비되기는 하지만, 여기서 ‘길’은 ‘제 뜻을 굽’힌 적이 없어요. ‘제 뜻’을 아는 사람에게 잘해줄 뿐이죠. ‘고분고분’이라는 말로부터 ‘복종’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고, ‘복종’이라는 말에는 ‘제 뜻을 굽’힌다는 느낌이 있기에 그럴듯해 보였던 선지였습니다. 평가원은 이렇게 단어의 일상적 의미가 지문의 맥락적 의미와 다른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단어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지문의 맥락을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⑤ [F]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태도는 [A]의 ‘사람들’의 태도와 대비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거의 주제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해설	사람들이 ‘길’의 진짜 뜻을 모르던 [A]의 태도와, ‘길’의 진짜 뜻을 깨달은 [F]의 태도는 당연히 대비된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인식 변화’가 곧 (나)의 주제였으니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10%	71%	10%	5%

13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① 글쓴이가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독자는 자신이 편지의 수신인이 된 것처럼 친근함을 느낄 수 있겠군.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초롱초롱 맑게 고인 샘물 같은 눈으로 나는 지금 당신께서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 봅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뭐 그렇지.
해설	이 지문의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이 독자로 하여금 수신인이 된 것 같은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허용이 되겠습니다.

② ‘노란 슬픔의 이야기’는 ‘가슴의 병’을 얻은 여인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으로 볼 수 있겠군.

나는 이제 이 긴긴 밤을 당신께 이 노란 슬픔의 이야기 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다.

(중략)

총명한 내 친구 하나가 그를 비껴서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제는 나도 기뻐서 그를 비껴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나의 수선이 시들어 갑니다. 그는 스물을 넘지 못하고 또 가슴의 병을 얻었습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슴의 병을 얻은 건 처녀였지.
해설	글쓴이의 '노란 슬픔'에 공감했다면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글쓴이는 어릴 적 좋아했던 '처녀'가 '가슴의 병'을 얻었던 개인적 경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처녀'를 닮은 '수선화'만 보면 '노란 슬픔'이 차올랐던 것이죠. 지문을 읽으면서 미리 독해한 내용이니, 가볍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③ '육보름'에 대한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을 대비한 것은 삶의 양면성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군.

밤이 아직 쌀 때가 멀고 또 복밥을 먹을 때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새 형짚이나 얻어다가 알록달록한 각시나 만들면서 이 남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 육보름 : 정월 대보름 다음날.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육보름에 대한 당신의 경험은 뭔데?
해설	글쓴이는 '육보름'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 '당신'의 경험과 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육보름'에 대한 '당신'의 경험이 나타나지도 않았죠? 나아가 <보기>에 따르면, 이 선지에서 말하는 '삶의 양면성'은 '슬픔'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보름'은 '즐거움'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틀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④ '부잣집'의 '기왓장을 벗겨 오'는 '새악시 처녀들'의 행동은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 일시적으로 용인된 것이겠군.

새악시 처녀들은 또 복을 가져오노라고 달을 보고 웃어 가며 살팽이같이 여우같이 부잣집으로 가서는 날쌔기도 하게 기왓골의 기왓장을 벗겨 오고 부엌의 솥뚜껑을 들어 오고 곱새담의 짚날을 뽑아 오고…….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일탈적 행동이 용인된다고 했지.
해설	'육보름'에 벌어지는 일종의 마을 축제는 일탈이 잠시 용인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부잣집'의 '기왓장을 벗겨 오'는 것은 일종의 도둑질이라는 일탈인데, 이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용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⑤ '자갈자갈', '끼득깨득'과 같은 음성 상징어에서 '새악시 처녀들'의 '허물없는 즐거움'과 쾌감을 느낄 수 있겠군.

새악시 처녀들은 새 옷을 입고 복물을 낚는다고 벌을 건너기도 하고 고개를 넘기도 하여 부잣집 우물로 가서 반동이에 옹패기에 찰락찰락 물을 길어 오며 별 같은 이야기를 자갈자갈 하는 밤입니다. …(중략)… 이렇게 허물 없는 즐거움 속에 끼득깨득 하는 그들은 산에서 내린 무슨 암짐승이 되어 버리는 밤입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갈자갈, 끼득깨득은 너무 즐거워 보이네.
해설	'자갈자갈'과 '끼득깨득'이라는 음성 상징어는 '새악시 처녀들'의 '즐거움'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죠?

현대시 독해 연습

(가)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백화(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총총히 외롭도 잊고 왔더니라

화자는 '아득히 첩첩한 산길'에 왔습니다. 인기척도 끊기도 새·짐승도 없는, 말 그대로 아득하고 첩첩한 곳인데, 화자는 그곳을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다고 합니다. 이때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은 '아득히 첩첩한 산길'과 같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자는 '한낮'에 생각에 잠겨 이곳으로 왔어요.

살다가 오래여 삭은 장목들 흰 팔 벌리고 서 있고 풍설(風雪)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 훌 훌 훌 창천(蒼天)에 흰 구름 날리며 섰더니라

싸아—한중일내—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안은 바람소리 …… 구월 고운 낙엽은 날리어 푸른 담(潭) 위에 호르르르 낙화 같이 지더니라.

그곳은 ‘살다가 오래여 삭은 장목들’과 ‘풍설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 등이 있는 곳입니다. 나아가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와 ‘바람소리’ 등이 들리고, ‘낙엽’이 ‘낙화’같이 지는 곳이네요. 별다른 내용 없이 ‘첩첩한 산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히 뿌리어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느니,

이제 나의 이 오늘밤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은 쓸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爛漫)하여라.

-박두진, 「별-금강산시 3」-

화자는 ‘어젯밤’에 ‘동해안 어촌’에서 잠을 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장엄히 뿌려진 ‘바다의 별’을 봤는데, ‘오늘밤’에는 ‘산장’에서 ‘하늘에 별들’을 보고 있네요. 지금 보고 있는 별들은 마치 꽃처럼 난만하게 펼쳐진 모습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첩첩한 산길’을 비롯해 화자가 경험했던 여러 자연 풍경을 묘사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겠죠?

(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안다고 합니다. 사실 저부터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화자가 보기에 이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장 구조로부터,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단순히 ‘길을 만들었다.’가 아닌 ‘길이 순순히 우리의 뜻을 좇을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만든다=뜻을 좇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도 하나의 글처럼 독해하면서 재진술을

체크해주시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길’은 사람들을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기도 하고, ‘큰물’에 ‘제 허리’를 동강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정’은 ‘일부러’의 방언인데, 해석해보면 큰물에 일부러 자기 허리를 동강 낸다는 것이네요. 비가 많이 와서 길이 잠긴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길)를 버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죠. 물에 잠겼으니 ‘길’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길’은 사람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원래 의도(건너갈 수 있게 함)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길’의 모습을 보고서, 사람이 만든 ‘길’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요.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이 ‘길’을 만든 게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들은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밖으로 불러낸다는 것은 ‘길’을 통해 바깥으로 나가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밖으로 나가 여러 가지를 구경시켜주는 것은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화자는 이 생각 역시 ‘사람이 길을 만들었다.’라는 대전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기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앞부분의 줄거리]의 상황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백공'이 '한림의 재모를 아껴 이같이 기별해 사위를 삼고자'했다는 부분에서, '한림'이 유세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면 잘 하신 거예요. '한림'이라는 새로운 호칭이 나왔을 때, 정말로 새로운 인물인지 한 번만 생각했다면 어렵지 않게 체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아가 '백공'은 '유세기=한림'과 결혼시키려 했던 어떤 여성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사위'라는 표현이 있으니까요. '백공'은 '선생 형제'를 찾아가서 오해를 풀고, '유세기'와 '선생'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주려 합니다. 어 그런데 '선생'에게 형제가 있나보네요? 체크할 준비하면서 읽어봅시다.

이에 백공이 유씨 집안에 이르러 선생 형제를 보고 인사를 하고 나서 흔쾌히 웃으며 가로되,
 “제가 두 형과 더불어 죽마고우로 절친하고 또 아드님의 특출함을 아껴 제 딸의 배필로 삼고자 하여, 어제 세기를 보고 여차여차하니 아드님이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가더이다. 제가 더욱 흠모하여 염치를 잊고 거짓말로 일을 꾸며 구혼하면서 ‘정약’이라는 글자 둘을 더했으니 이는 진실로 저의 희롱함이외다. 두 형께서 과도히 곧이듣고 아드님을 엄히 꾸짖으셨다 하니, 혼사에 도리어 훼방이 되었으므로 어찌 우습지 않으리까? 원컨대 두 형은 아드님을 용서하여 아드님이 저를 원망하게 하지 마오.”
 선생과 승상이 바야흐로 아들의 죄가 없는 줄을 알고 기뻐하면서 사례하여 왈,
 “저희 자식이 분에 넘치게 공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니 마땅히 그 후의를 받들 만하되, 이는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법이 아니기에 감히 재취를 허락하지 못하였소이다. 저희 자식이 방자함이 있나 통탄하였더니 그간 곡절이 이렇듯 있었소이다.”

백공은 '선생 형제'한테 가서 '흔쾌히 웃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오해를 풀어야 하니, 웃는 낯으로 가야겠죠. 보아하니 결혼 이야기는 '유세기'의 잘못이 아니라, '백공'이 거짓말로 꾸며낸 소문이었네요.

'백공'의 해명을 들은 '선생'과 '승상'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풀렸고, 아들의 잘못이 아님을 알았으니 당연히 기쁘겠죠. 나아가 원래 '백공'이 대화를 건 대상은 '선생 형제'였는데, 기뻐하는 건 '선생, 승상'임을 토대로 '승상'이 바로 '선생'의 형제, 즉 '유세기'의 가족임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인물관계를 잡는 게 쉽지 않은 지문이었어요. 이처럼 새로 나온 인물(승상)이 정말로 뉴페이스인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라면 어떤 인물을 다

르게 표현하는 것인지를 토대로 관계를 만들어주셔야 해요!

백공이 화답하고 이윽고 돌아가서 다시 혼삿말을 이르지 못하고 딸을 다른 데로 시집보냈다. 선생이 백공을 돌려보낸 후에 한림을 불러 앞으로 더욱 행실을 단을 것을 훈계하자 한림이 절을 하면서 명령을 받들었다. <차후 더욱 예를 삼가고 배우기를 힘써 학문과 도덕이 날로 숙연하고, 소 소저와 더불어 백수해로하면서 여덟 아들, 두 딸을 두고, 집안에 한 명의 첩도 없이 부부 인생 희로를 요동함이 없더라.>

아무튼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난 뒤, '백공'의 딸은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쿨하네요. 이제 '선생'은 '한림'을 불러 훈계를 하고, '한림'은 그 말을 잘 들었다고 해요. '소 소저'와 잘 살고 그러기까지 하고 말이죠. 사실 제가 '유세기=한림'의 상황이었다면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역시 조선시대의 감성은 남다른데.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들의 심리와 행동에 최대한 공감해주셔야 해요!

승상의 둘째 아들 세형의 자는 문희이니, <형제 중 가장 빼어났으니 산천의 정기와 일월의 조화를 타고 태어나 아름다운 얼굴은 윤택한 옥과 빛나는 봄꽃 같고, 호탕하고 깨끗한 풍채는 용과 호랑이의 기상이 있으며, 성품이 호기롭고 의협심이 강하여 맑고 더러움의 분별을 조금도 잃지 않으니,> 부모가 매우 사랑하여 며느리를 널리 구하더라.

그러다 갑자기 '승상'의 아들 '세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상'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죠? 갑자기 '세형'에 대해서 왜 말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유추해보니, 엄친아 그 자체인 것 같네요. 갑자기 이 인물을 설명해준 이유가 있겠죠? 확실하게 잡아두고 가 봅시다. '며느리를 구하는 상황'임도 놓치지 마시고요.

(중략)

화설, 장 씨 이화정에 돌아와 긴 단장을 벗고 난간에 기대어 하늘가를 바라보며 평생 살아갈 계책을 골똘히 헤아리자, 한이 눈썹에 맺히고 슬픔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생각하되,

‘내가 재상가의 귀한 몸으로 유생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마음이 흡족하고 뜻이 즐거울 것이거늘, 천자의 귀함으로 한 부마를 뽑는데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낭군을 빼앗아 가 위세로써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셨는가? 도리어 저 사람의 덕을 찬송하고 은혜를 읊어 한없는 영광은 남에게 돌려 보내고 구차한 자취는 내 일신에 모이게 되었고다. 우주 사이는 우러러 바라보거나 하려니와 나와 공주의 현격함은 하늘과 땅 같도다. 나의 재주와 용모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고 먼저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이처럼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 알리오? 공주가 덕을 베풀수록 나의 몸엔 빛이 나지 않으리니 제 짐짓 능할하여 아버님, 어머님이나 시누이를 제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낭군의 마음은 이를 좇아 완전히 달라질지라.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고?’

생각이 이에 미치자 복받쳐 오르는 한이 마음속에 가득 쌓이기 시작하니 <어찌 좋은 뜻이 나리오?>

(중략) 이후의 상황입니다. ‘장 씨’라는 인물이 ‘이화정’이라는 공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과 슬픔’이라는 심리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알아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겠죠?

‘장 씨’는 ‘유생’과 결혼을 한 상태인데, ‘부마’를 뽑는 ‘천자’ 때문에 남편을 ‘공주’에게 빼앗긴 상태네요. 참고로 ‘부마’는 왕의 사위(공주의 남편)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고전소설을 읽을 때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공주보다 한참 밑에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 ‘장 씨’는 굉장히 슬퍼 보입니다. 자기 남편을 뺏기고 찬밥신세가 되었다는데, 누구라도 ‘한과 슬픔’이라는 심리가 나오겠죠. 이번엔 어렵지 않게 공감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유생’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중략) 직전에 나왔던 ‘세형’일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시킬 게 아니라면, 마지막에 뜬금없이 ‘세형’을 등장시킬 이유가 없죠. 물론 뒤에서 더 확실해지기는 하지만, ‘유생’이라는 뉴페이스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셨다면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나아가 ‘어찌 좋은 뜻이 나리오?’ 부분은 서술자의 생각이 개입된 부분이죠? 이런 ‘서술자의 개입’, 선지에 출제될 수도 있으니 확실하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정히 눈물을 머금고 마음을 붙일 곳 없어하더니, 문득 세형이 <보라색 두건과 녹색 도포를 가볍게 나부끼며> 이르러 장 씨의 참담한 안색을 보고 옥수를 잡고 어깨를 비스듬히 기대게 하며 물어 알,

“그대 무슨 일로 슬픈 빛이 있나뇨? 나를 좇음을 원망하는가?”

장 씨가 잠시 동안 탄식 왈,

“낭군은 부질없는 말씀 마옵소서. 제가 낭군을 좇는 것을 원망했다면 어찌 깊은 규방에서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였사오리까? 다만 제가 귀댁에 들어온 지 오륙 일이 지났으나 좌우에 친한 사람이 없고 오직 우러르는 바는 아버님, 어머님과 낭군뿐이라 어린 여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바이옵니다. 공주가 위에 계셔 온 집의 권세를 오로지하시니 그 위외와 덕택이 저로 하여금 변변찮은 재주 가진 하졸이 머릿수나 채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만드옵니다. 제가 값히 항거할 뜻이 있는 것이 아니나 평생의 신세가 구차하여 슬프고, 진양궁에 나아가면 궁비와 시녀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어 한 가지 일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고, 제 입에서 말이 나면 일천여 시녀가 다 제 입을 가리니, 공주의 은덕에 의지하여 겨우 실례를 면하고 돌아왔사옵니다.”

부마가 바야흐로 장 씨의 외로움을 가련하게 여기고 공주의 위세가 장 씨를 억누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장 씨의 이렇듯 애원한 모습을 보자 크게 불쾌하여 장 씨를 위한 애정이 샘솟는 듯하였다. 은근하고 간곡하게 장 씨를 위로하고 그 절개와 외로움에 감동하여 이날부터 발자취가 이화정을 떠나지 않았다. 연리지와 같은 신혼의 정은 양왕의 꿈에 빠진 듯 어지럽고, 낙천의 마음이 취한 듯 기쁘고 즐거워 바라던 바를 다 얻은 듯한 마음은 세상에 비할 데가 없더라.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아니나다를까 여기서의 ‘유생’은 ‘세형’이었네요. < > 표시된 부분에서 멋진 외양 묘사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형’은 ‘장 씨’의 참담한 안색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묻고 있습니다. 본인과 결혼한 것이 후회되냐는 눈치없는 이야기를 하자, 답답한 ‘장 씨’는 자신의 울분을 토해냅니다. 이 감정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죠?

‘부마=유생=세형’도 ‘공주’를 좋지 않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장 씨’에 대한 가련함과 ‘공주’에 대한 ‘불쾌’함을 느끼며 ‘장 씨’를 향한 ‘애정’이 샘솟는 모습입니다. ‘부마’가 ‘세형’

을 의미한다는 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새로운 호칭이 나오면 계속해서 정말 새로운 인물인지를 생각해주시여야 해요! 그 뒤론 '장 씨'가 살고 있는 '이화정'에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2%	7%	62%	11%	8%

38 이같이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혼인은 좋은 일이라 서로 헤아려 잘 생각할 것이니 어찌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한림의 재모를 아껴 이같이 기별해 사위를 삼고자 하였더니 선생 형제는 도학 군자라 예가 아닌 것을 문책하시는데도다. 내가 마땅히 곡절을 말하리라.”

- 간단한 내용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유세기'가 오해로 인해 집에서 쫓겨 나게 된 상황이었죠? '선생'이 오해를 하게 된 이유, 그리고 '백공'이 그 오해를 풀어 주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① 백공의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거짓말로 혼사를 꾸며서 일어난 일이지.
해설	'백공'이 거짓말로 혼사를 꾸며서 갈등이 시작된 것이었죠? 내용을 이해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백공'이 '선생 형제'에게 가서 무엇을, 왜 했는지 정확히 이해했어야 해요!

② 백공이 한림을 곤경에 처하게 한 일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쫓겨났으면 곤경에 처하게 했다고 할 수 있겠네.
해설	'한림'이 '유세기'인 것을 체크했는지 묻는 선지네요. '백공'이 거짓말을 해서 '한림', 즉 '유세기'가 쫓겨날 뻔 했으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호칭이 나올 때마다, 정말로 뉴페이스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③ 선생과 승상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심화된 일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선생과 승상 사이에 의견 대립이 없었는데?
해설	이번엔 '선생 형제'가 '선생+승상'으로 바뀌어서 불리고 있다는 걸 체크했는지 묻는 선지네요. 둘의 의견 대립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백공'의 이야기를 들은 뒤 동시에 기뻐하는 반응을 보였죠.

④ 한림이 선생과 승상으로부터 꾸지람을 당한 일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었지.
해설	이 일 때문에 '한림', 즉 '유세기'가 쫓겨날 뻔했고, 나중엔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한 소리 들었죠? 역시 '인물관계'를 통한 내용 이해를 묻고 있네요.

⑤ 백공이 한림을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려다 일어난 일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었지.
해설	1번 선지와 연결되는 내용이죠? 이를 위해 거짓말을 했다가 갈등이 생긴 겁니다. 내용만 잘 이해했다면 어렵지 않게 지울 수 있는 선지였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5%	9%	77%	6%

39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 [A]는 낭군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장 씨'가 혼자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부분이고, [B]는 자신의 심정을 '세형'에게 털어 놓는 장면이었습니다. 대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각 부분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일 거예요.

① [A]와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남편 뺏기고 그 이후의 상황 쪽 이야기한 거니까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 맞지.

해설	모두 과거 이야기가 있죠? [A]와 [B] 모두 과거에 있었던 일들, 즉 '공주'에게 남편을 빼기고 여러 사람들에게 구박을 받았던 일들을 토대로 '장 씨' 자신의 서러움을 토로하는 부분들이니까요.
----	---

② [A]와 [B]는 모두 비유적 진술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에이 귀찮아. 일단 다른 선지부터 봐야지.
해설	비유적 진술 찾아봅시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선지를 보고 지문으로 가서 찾아야 해요. 지문 읽으면서부터 비유적 진술을 체크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니까요. [A]에는 '하늘과 땅 같도다', [B]에는 '하줄이 머릿수나 ~ 같게 만드웁니다.' 등에서 찾을 수 있네요.

| 생각 심화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이 좀 충격적이죠? 이처럼 실전에서 문학 문제를 풀 때는, 지문을 읽으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찾으러 가기 귀찮은 내용들을 뒤로 미루는 것도 좋은 태도입니다. 보통 이런 내용들은 답이 잘 아닐 뿐 아니라, 혹시나 답이라고 해도 나중에 확인한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요.

문학은 독서와 달리 '시간 단축'이라는 목적을 함께 가져 가야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줘야 합니다. 스스로 더 많은 '전략'들을 만들어봅시다.

③ [A]는 [B]와 달리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의문형 표현 있고, 천자랑 공주 원망하고 있으니 허용되네.
해설	'비유적 표현'과 달리 '의문형 표현'은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음표만 찾으시면 되니까요. [A]부터 볼까요? '~하어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셨는가?'에서 '의문형 표현'을 찾을 수 있고, 이 속에서 '천자'에 대한 원망을 읽어낼 수 있겠네요. [B]에서는요?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였사오리까?'에 의문형 표현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는 '원망'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 '세형'의 오해를 풀기 위한 발화였죠? 인물의 발화가 어떤 의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행동의 '근거'를 생각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④ [B]는 [A]와 달리 대화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애초에 우월한 지위가 없잖아.
해설	우월한 지위를 드러낸다고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존댓말하면서 애절하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장 씨'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드러냈다는 '근거'가 없으니 절대 허용할 수 없겠네요.

⑤ [A]는 앞으로의 일을 추정하는, [B]는 지난 일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었지.
해설	[A]에서는 '낭군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라거나 '나의 앞날은 어이 될고?'라고 하며 앞으로의 일을 추정하고 있고, [B]는 아예 대부분이 과거의 일들이죠? 주변에 친한 사람도 없어서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는 식의 우려도 내보였으니, 쉽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3%	83%	7%	4%

40 '장 씨'를 중심으로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화설, 장 씨 ㉠ 이화정에 돌아와 긴 단장을 벗고 난간에 기대어 하늘가를 바라보며 평생 살아갈 계책을 골똘히 헤아리자, 한이 눈썹에 맺히고 슬픔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생각하되,
은근하고 간곡하게 장 씨를 위로하고 그 절개와 외로움에 감동하여 이날부터 발자취가 ㉡ 이화정을 떠나지 않았다.

- '이화정'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첫 번째 이화정은 '장 씨'가 자신의 한탄을 시작하는 공간이었고, 두 번째 이화정은 '세형'이 '장 씨'의 이야기를 듣고 행복하게 공낭대는 공간이었어요.